

6장 <메 데 아>

에우리피데스 기원전 480 – 406

메데아 신화의 줄거리

1. 노파로 변장하고 이올코스 Iolkos에 내려와 강물에 빠진 헤라클레스를 이아손이 구조
(이올코스의 왕 펠리아스 Pelias에 대한 신탁:“샌달 한 짝 남자에게 살해되리라.”)
2. 왕: “콜키스 Kolchis(그루지아/조지아)로 가서 Aietes의 금빛양 모피를 가져올라.
양위하리라.” 속마음은 ‘물에 빠져 죽거나 다쳐 죽어라’
3. 이아손이 아르고호 영웅들 Argonauts 을 데리고 콜키스로 가서 모피를 가져옴
4. 왕이 배신하자
메데아가 왕의 두 딸 앞에서, 늙은 숫양을 토막쳐 끓는 물에 넣고 약초를 넣어
젊은 양이 되게 한다. 왕의 아들에게 추방당해 코린트 Corinth로 감
5. 코린트에서 메데아가 이아손에게 배신 당하자 두 아들을 죽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아>

- 행동 [사건, 줄거리], 시간, 장소의 통일 원칙을 준수
- 행동과 시간: 과거의 긴 사건은 완료되어 있음.
- 이아손과 크로이사 공주의 혼인결정 소식 시점부터 메데아의 자식 살해 시점까지만 관객에게 제시됨
- 장소: 코린토스, 메데아의 집 앞

(코린트 양식, 고린도서)

주요 등장인물

- 메데아 (콜키스의 공주)
- 이아손
- 크레온 (코린토스의 왕)
- 아이게우스 (아테네의 왕)

- 메데아 (집 안에서):

정의의 여신 테미스 님이여, 그리고 아르테미스 님이여, 이 몸이 당하는 이 고초,
굳은 맹세로 백년간약을 약속했는데도 저 몸쓸 남편에게 당하는 이 고초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죄 없는 저에게 이런 몸쓸 짓을 합니다. 그와 신부가 궁전과 함께 망하게 하소서!
[...]

- 여성 코러스:

메데아가 우리 눈 앞에 나타나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었으면 좋으련만! [...]

(유모에게)

어서 가서 그녀를 집밖으로 모셔 오세요. 우리도 그녀의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서두세요. 그녀가 안에 있는 자식들을 해치기 전에!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격렬합니다.

- 메테아:

생명과 분별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 중에서 우리 여자들이 가장 비참해요.

첫째, 우리는 거액의 지참금을 대가로 치르고 남편을 사서 우리의 상전으로 모셔야 해요.

두 번째 불행은 더 불행한 것이예요. 그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알 수 없어요. 헤어진다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불명예이어서 그 남자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요. [...]

메데아:

우리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해요.

그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들은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나는 한 번 아이를 낳느니, 차라리 세 번 싸움터로 뛰어들고 싶어요.

그대들은 나와 처지가 달라요. 여기 고향 도시와 아버지의 집과 인생의 행복과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외토리이고, 고향 도시도 없고 야만족의 나라에서 납치되어 와서 남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메데아의 처지

- 가부장 사회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여성
- 낯선 외국에서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이방인

남성들의 메데아 추방 이유

- 크레온:

이 나라를 떠나시오.

- 메데아:

그대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만 나는 이 나라에서 살게만 해주세요.

- 크레온:

그대가 마음속으로는 흥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소.

감수성 많은 여자들은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고통을 겪는 존재인가?

- **이아손:**

나의 항해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신과 인간들 중에서 오직 아프로디테 뿐이었다고 나는 생각하오. 에로스가 화살을 그대에 쏘았을 뿐이오. 그대는 나를 도와준 대가로 이미 넘치도록 많이 받았잖소?

첫째 그대는 야만족의 나라를 떠나 이 헬라스에 살면서 정의를 배웠으며 폭력을 멀리 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웠소.

그리고 당신이 머리가 영리하다는 것을 헬라인들은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은 모든 헬라인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소.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남성들은 역사의 리더인가?

내가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궁하지 않기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은 친구들도 모두 피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자식들을 내 가문에 어울리게 양육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려는 것이오. 그들이 장차 태어날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오. [...]

내가 재혼하는 것은 여색을 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왕가의 피를 받은 형제자매를 낳아주어 우리 집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오.



감성과 이성의 조우불가능성에 대한 감성의 대응

- 메데아

내가 내 아이들을 내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애들은 무조건 죽어야 해.[...]

아아, 이 귀여운 손, 이 귀여운 입.

그리고 내 자식들의 몸매와 고상한 얼굴이여!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곳에서! [...]



- 사자(使者):

머리에 쓰고 있던 황금관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불길이 흘러내렸고 그대의 선물인 고운 옷은 그 불행한 여인의 하얀 살을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정수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불과 뒤섞이고 맹독의 보이지 않는 이빨들이 살을 떼어내니 살이 마치 송진처럼 뼈에서 떨어져나가고 있어, 실로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왕은 마치 담쟁이 덩굴이 월계수의 가지들에 달라붙듯, 그 고운 옷에 달라붙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여성 배려 결말

- 이아손:

어서 빨리 빗장을 열어라. 죽은 아이들과 그녀를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복수하리라.

(메데아가 아이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지붕 위에 나타난다)

- 메데아:

무슨 일로 그대는 나와 시신들을 찾는 거예요? [...] 손으로 나를 잡지 못할 겁니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헬리오스께서 나를 위해, 적의 손으로부터 막아줄 이런 수레를 주셨으니 말예요. [...] 나는 판디온의 아들 아이게우스의 집에 가서 살 겁니다..

메데아의 감성적 사랑과 이아손의 이성적 명예욕의 어긋남

- 무엇을 택할 것인가?
- 사랑을 위한 신화적 폭력 vs. 명예를 위한 문명적 폭력
- 자연 및 자식과 합일하려는 메데아의 마법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실용주의적으로 계산하는 이아손
- 열정과 냉철함
- 이아손은 아르고호의 선장으로서 오디세우스 유형의 현대적 계몽주의 인물
- 계몽주의의 부작용: 목적합리성 원칙
-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음

메데아 신화의 현대적 연출: 영화 <메데아>(1969)

- 메데아 신화의 감성적 요소를 부각시킨 연출
- 감독 파졸리니
- 주요장면: 16분 ~, 42분~ ,1시간 15분~
- 문화인류학적 관심
- 프레이저 <황금가지> (1890)
- 엘리아데 <성과 속>(1957):“현대인은 성스러움을 잃어버렸다.”

콜키스와 코린투스의 대립

- 행동구성:
 - 메데아는 우주와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여사제 (메데아의 반복되는 제례의식은 순환의 우주를 상징)
 - 이아손은 형이상학을 모르는 기술자(이아손 일행이 목적을 향해 일렬로 행진하는 모습과 대조),
 - 켄타우르스: 동물의 몸과 인간의 지혜를 겸비하라고 이아손에게 교육
- 공간구성:
 - 카파도키아 언덕의 둥근 주거혈穴 형태 vs.코린트 궁정의 직선적인 건축
- 시간구성:
 - 자식살해시간을 저녁에서 새벽까지로. 죽음과 삶의 연결 상징

-
- 콜키스 종족은 공동체의 복판에서 구성원을 택해서 그의 몸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
 - 마취제로 희생자를 안식시키고, 온 몸에 흠칠을 하고 나무에 매달고, 시체를 토막내고 다시 종족들이 그를 대지에 묻는다.
 - 제례의식: 문명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행위.
 - 고대 그리스 연극은 신화적 합일목적의 제례의식 행사에서 유래

파졸리니의 반문명적 감성주의

- 현대인은 이성(理性)으로 2차대전의 폭력과 파괴를 저질렀고 전쟁 이후에는 경제가 재건되자 다시 소비주의에 물들었다.

고전주의 비극의 페미니즘

에우리피데스 <메데아>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라신 <페드라>

- 고전주의 비극에서 그녀들은 이성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떻게 감성을 주장하는가?
- 감성은 문명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의 파괴 요인인가?
- 여성들의 감성은 남성들의 두려움이 생산한 허구적 환상인가?
- 감성은 문명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인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시선을 빌어서 남성 주인공 이아손의 정체성 고찰하기

- 문명사회에서 보로매오의 매듭처럼
맺어지며 남성적 주체가 탄생
- 상상계의 무의식
- 상징계의 의식
- 실재계의 흔적
- 라캉의 저서 <에크리>, <세미나>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빌어 여성주인공 메데아의 성격 고찰하기

- 메데아의 신화적 요소와의 동일시 찬성론
- 이리가레, 크리스테바
“안티고네, 메데아, 페드라는 코라가 되어 남성들을 품에 안아준다.”
- 메데아의 신화적 요소와의 동일시 비판론
- 주디스 버틀러
- “코라와의 동일시는 여자를 영원히 남자의 종속물이 되게 할 뿐이다.”

신화적 요소로서의 코라

- “신이 모든 것이 훌륭하기를 바랐지, 그 어떤 것도 가능한 한에 있어서, 불품없기를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인데, 이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며 무질서하게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코라]을 그가 받아서는, 그것을 무질서 상태(ataxia)에서 질서 있는 상태(taxis)로 이끌었습니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Timaeus』 (= 실린곳: <소크라테스의 대화 Socratic dialogue>), 박종현 역, 서광사, 2000년, p.83
- 해석: 우주의 태초에는 혼돈 즉 “코라 chōra(khōra)”[그리스어로 ‘처녀’라는 뜻]가 있었다. 그곳에 신 데미우르고스 demiourgos가 와서 무질서 ataxia를 질서 taxis로 만들었다.

-
- “지성은 필연으로 하여금 생성되는 것들의 대부분을 최선의 것(to beltiston)을 향해 이끌고 가도록 설득함으로써 필연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필연이 슬기로운 설득에 승복함으로써 태초에 이 우주(to pan)가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티마이오스』, p.131-132
 - 세계는 코라 즉 자연의 필연성을 극복하는 신적 지성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 코라가 원재료로서의 바탕이라면 지성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코라와의 동일시 찬성의 근거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 이리가레: “우주의 모성적인 기운이 남성적인 사회를 포용한다.”
- 줄리아 크리스테바:
“여성의 기호학적 기운 *das Semiotische*이 남성의 언어적 질서 *das Symbolische*를 교란하고 전복한다.”

코라와의 동일시 비판의 근거

미국식 페미니스트들의 주장

- 쥬디스 버틀러
- “여성으로서의 코라는 텅 빈 것이다. 코라(Chora: 담는 그릇)와의 동일시는 남성주의의 도구가 된다”.
- “여성도 남성처럼 사회적으로 되어야 한다.”

현대연극에서의 코라 예감

- 현대연극은 문명으로 인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몸의 감성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음
- 크리스테바의 문학예술론
“코라는 상호텍스트성. 대화적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코라는 시(詩)에서 지각된다.”
- 연극에서는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살아있는 배우의 몸, 숨소리, 표정을 느낄 수 있다.

코라로서의 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햄릿>, <햄릿기계>의 올림피아
- <인형의 집>의 노라
- <보이체크>의 마리
- <사천의 선인>의 여주인공 센테